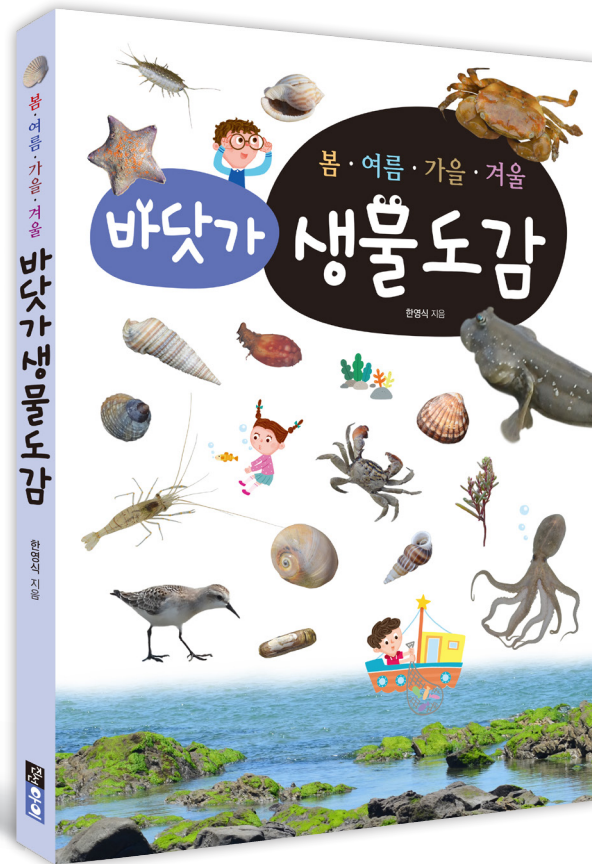


봄·여름·가을·겨울 바닷가생물도감

• 초등학교에서 교과서와 함께 펼쳐 보는 생물 도감 •



대상 학년 초등 전학년

교과 연계

- 3학년 1학기 과학 3. 동물의 한살이 • 3학년 2학기 과학 2. 동물의 생활
- 4학년 2학기 과학 1. 식물의 생활 • 5학년 2학기 과학 2. 생물과 환경
- 6학년 1학기 과학 4. 식물의 구조와 기능 • 6학년 2학기 과학 2. 계절의 변화
- 1~2학년 통합 교과 속 동식물 이야기와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 이 독서 활동지는 진선출판사 홈페이지 및 블로그, 포스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현직 선생님의 추천 이야기



바닷가에 사는 생물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여러 종류의 물고기나 돌고래, 상어 등이 떠오를 거예요. 아이에게도 바닷가에 사는 생물이 뭐가 있을까 하고 물어보세요. 바닷가에는 물고기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갯벌에 사는 조개도 있고, 고동도 있고, 돌에 붙어 있는 해조류도 있지요. 그리고 바닷가에 사는 곤충과 식물, 바닷가 생물을 먹고 사는 바닷새도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지요. 물고기만 떠오르는 아이는 바다에 가서 바닷물과 모래사장만 보고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닷가 생물을 알고 가는 아이는 조개, 해조류, 곤충, 식물, 새까지 온갖 생물을 보물찾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관찰하게 되겠지요. 심지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다른 생물들이 바닷가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이가 관찰하고 탐구하고 집중하게 하려면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재료를 주어야 합니다. 아이와 바닷가에 가기 전 <봄·여름·가을·겨울 바닷가생물도감>을 함께 읽으며 바닷가 생물에 대한 생각을 넓혀 주세요. 물고기뿐만 아니라 거대한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고, 그중 어떤 것을 볼 수 있을지 기대하며 바닷가를 방문한다면 훨씬 더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과학에 대한 관심이 자라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 책을 읽고 바닷가를 새롭게 경험하는 과정이 과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자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유라(괴산 김물초등학교 교사)

아이의 마음이 궁금해 교실에서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 저서 <그림책으로 마주하는 아이 마음>
전국 교육청 ‘그림책 활용 교육’ 직무연수 강사





책을 읽기 전에

표지를 살펴보고 읽을 준비를 해요



책의 표지를 살펴보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앞표지에 무엇이 보이나요?

Three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앞표지에 보이는 것 중 내가 바닷가에서 직접 본 것이 있다면 동그라미 쳐 봅시다. 혹시 그것의 이름을 안다면 써 봅시다.

Three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책을 펼치면 '탐사 준비물'이 나와요. 하나씩 읽으며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봅시다. 탐사 준비를 한 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

A large, irregular green outline box for drawing.

"이제 책을 읽을 준비가 되었어요. 읽고 싶은 부분부터 읽어 볼까요?"





책을 읽으면서 함께

바닷가 생물 카드를 만들어 봅시다.



배운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생물들의 생물 카드를 만들어 볼까요?

★만드는 방법 예시★

책을 읽다가 만들고 싶은 바닷가 동물을 짚해 둡니다.
아래 카드 종이를 이용해 만들어 보세요.

그림 그리기



쭈꾸미

생물 이름 쓰기

책 속 설명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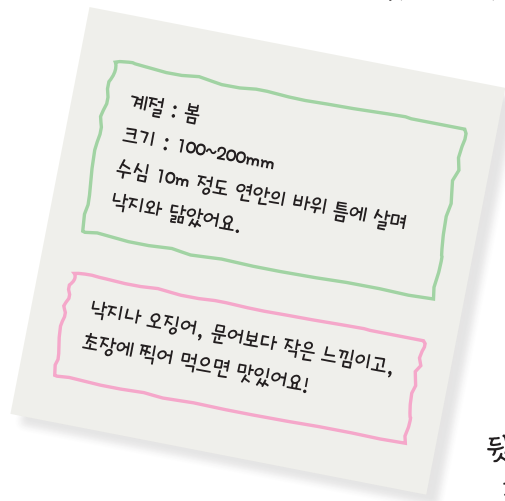
계절 : 봄
크기 : 100~200mm
수심 10m 정도 연안의 바위 틈에 살며
낙지와 닮았어요.

낙지나 오징어, 문어보다 작은 느낌이고,
초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내가 알고 있거나
찾은 것을 추가로 써도 좋음!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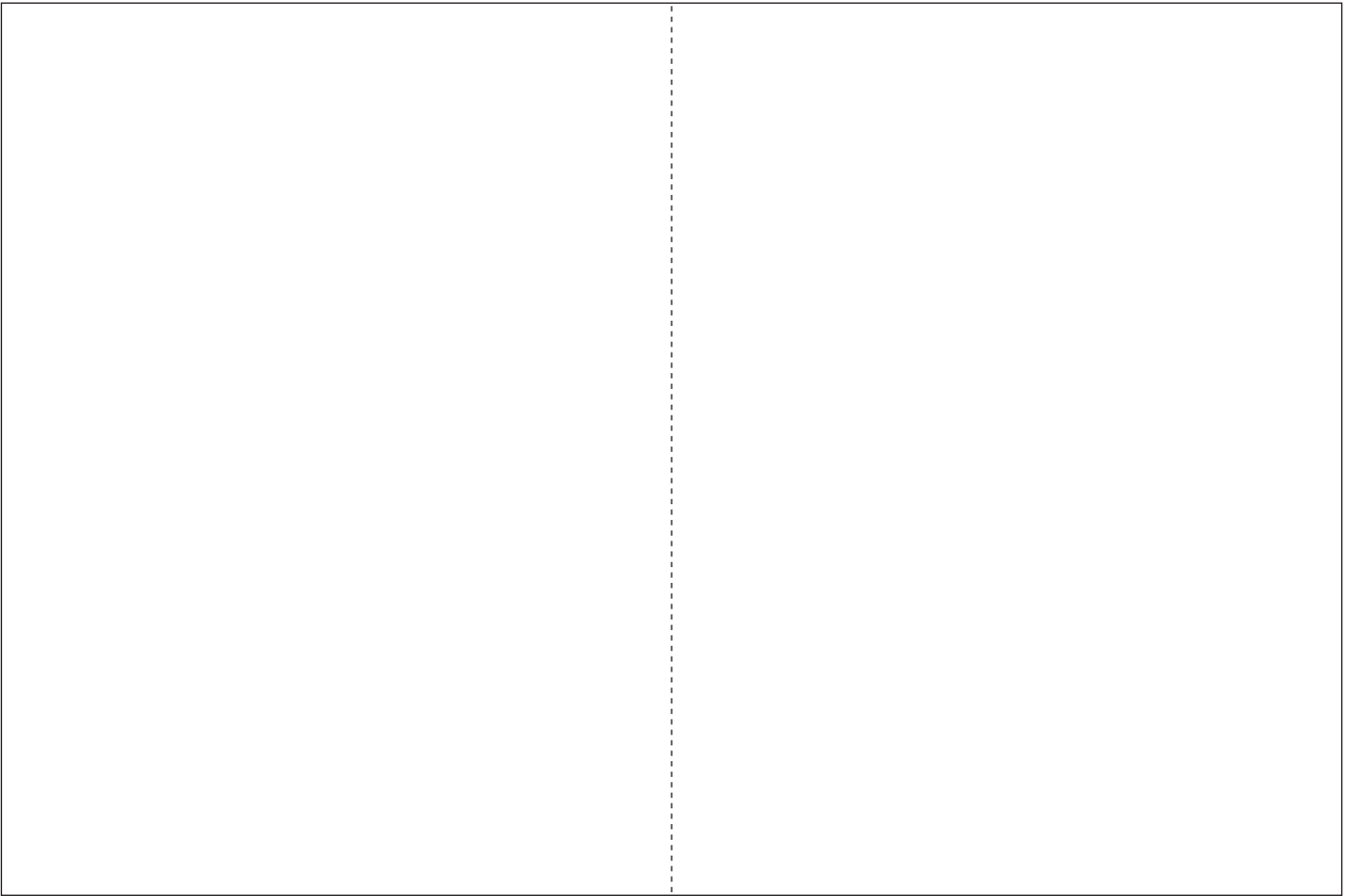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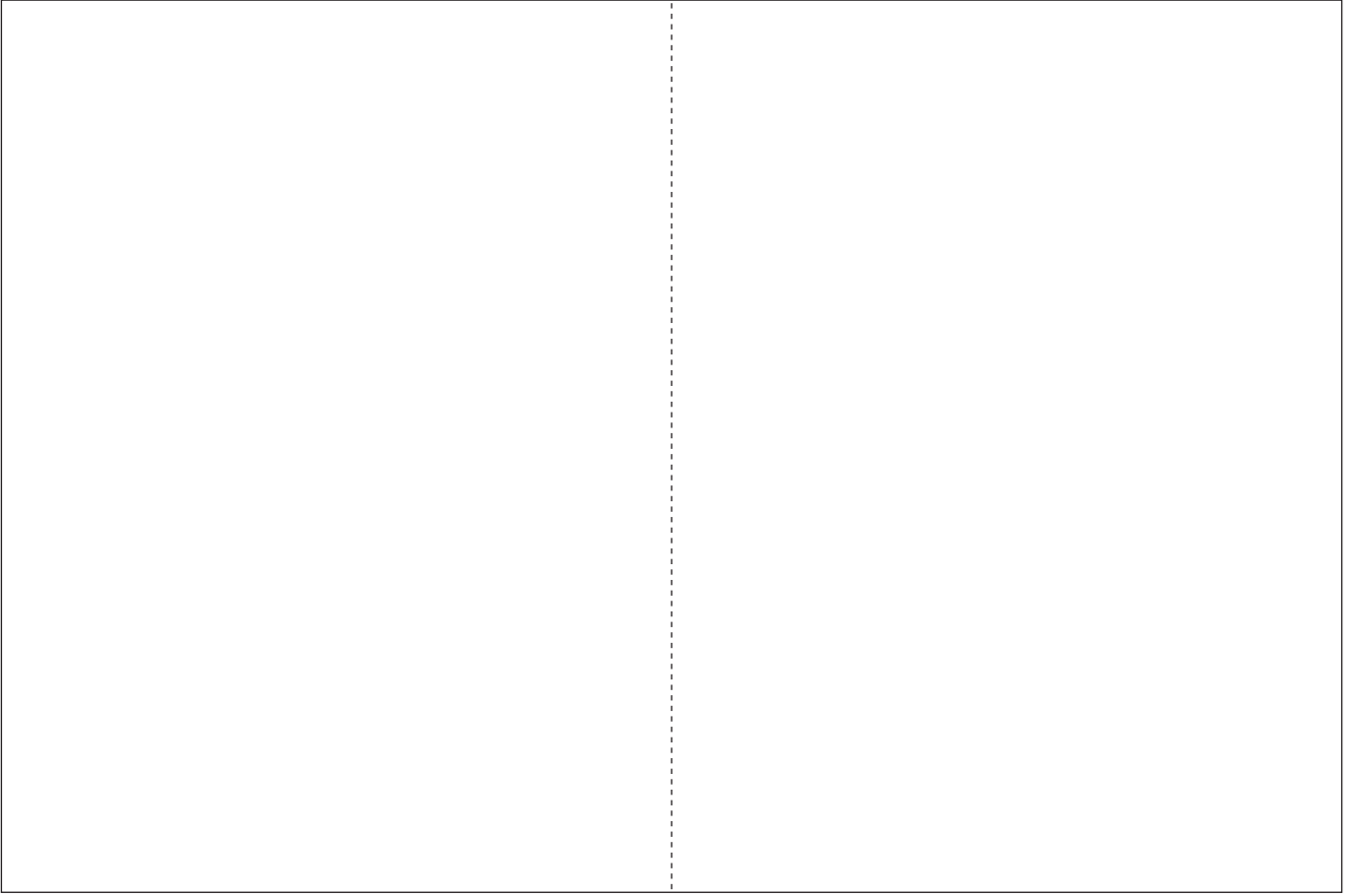


뒷면



뒷면에 풀칠을 하고
가운데를 접으면
이렇게 카드가
완성 됩니다!







책을 읽으며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힌트 없이 문제를 풀어 보고 어렵다면 힌트를 참고하여 풀어 보세요.



문제	정답
바닷가 조개껍질 중 매끄러운 구멍이 뚫린 조개껍질이 있어요. 이 구멍은 누가 왜 뚫어 놓은 것일까요? (힌트 : 15쪽)	
[OX퀴즈] 바닷가에는 소금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지 못한다. (힌트 : 26쪽)	
여름 모래 갯벌에 가면 구슬처럼 동글한 모래 구슬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누가 왜 만든 것일까요? (힌트 : 41쪽)	
여름 바닷가 간척지 습지에서 볼 수 있는 '거미'로,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어다니며 곤충을 잡아먹고 머리 앞쪽에 흰색의 가로띠무늬가 있는 것은? (힌트 : 65쪽)	
겨울 바다에는 겨울나기를 하러 날아온 새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중에서도 멸종위기 야생동물2급, 천연기념물 201호인 이 새는 '백조'라고도 불러요. 이 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 103쪽)	
바닷가의 세찬 바람을 막기 위해 방풍림으로 심는 소나무를 뭐라고 할까요? (힌트 : 111쪽)	
바닷가 생물을 위태롭게 만드는 해양 쓰레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는 만큼 말해 봅시다. (힌트 : 122~123쪽)	



책을 통해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바닷가 생물에 대해 배웠어요. 내가 바다에 갔다고 생각하고 바다에 간 나의 모습을 그려 봅시다. 단, 우리가 배운 바닷가 생물을 함께 그려볼게요. 어떤 계절이든 좋아요. 계절에 맞게 그려 봐요. 필요하다면 책을 다시 펼쳐 보고 그려도 좋아요.

내가 선택한 계절 :





바다에 놀러 가게 되면, 꼭 이 책을 기억하세요. 이 책에서 만난 다양한 생물이 바다에 살고 있거든요. 바다와 바닷가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을 관찰해 봐요. 그리고 내가 만난 생물들을 정리해 봅시다. 사진을 찍어서 붙여도 좋고, 그림으로 그려도 좋아요.

내가 바다에 놀러 간 계절 :

생물 이름	그림 또는 사진	특징 및 느낌
		